

경산성, 일본기업의 인도 진출 지원 확대

- 인도의 경제성장으로 5년 전에 비해 2.7배나 늘어난 일본 기업들의 인도 진출은 시장 확대에 따라 늘어 날 것으로 전망
-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 기업들의 인도 진출을 확대시키기 위해 일본기업 전용공단 설치 등 지원제도를 마련, 해외수입의 환류 메커니즘을 구축하겠다는 전략

□ 일본기업의 인도 진출 현황

- 도쿄데이터뱅크 자료에 의하면, 인도에 진출한 일본 기업은 현재 672사로 5년 전에 비해 2.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
 - 업종별로는 △제조업 382사(56.8%), △소매업 121사(18.0%), △서비스업 76사(11.3%), 운수통신업 39사(5.8%)순 임
 - 제조업의 구성비는 전체 50%이상을 차지, 5년 전보다 3배가 늘어남. 특히 기계제조(99사), 전기기구제조(65사), 자동차·부품제조(58사) 등의 진출이 눈에 띄
- 매출 규모별로 「100억 엔~1000억 미만」 과 「1000억 엔 이상」 이 전체 약70%를 차지
 - 매출 규모별로 보면, 「100억 엔~1000억 미만」 기업이 238사로 35.8%, 「1000억 엔 이상」 이 217사로 32.7% 차지

- 일본기업의 對인도 진출은 국내수요의 축소로 잠재수요와 성장이 예상되는 인도의 소비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
- 그리고 작년 일본-인도FTA가 체결된 이후 일본 UNIQLO가 진출을 발표하는 등 규제로 인해 그동안 일본기업의 진출이 거의 없었던 소매업의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

□ 인도에 진출하는 일본기업 지원

- 경제산업성은 아시아에 진출하는 일본 중소기업을 지원할 방침으로 특히, 인도의 남부지역을 중점지역으로 지정하고 향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
- 에다노 경산대신도 금년 1월 10일 인도를 방문하고 자금이 취약한 중소기업들도 진출하기 쉬운 체제를 만들겠다고 표명
 - * 인도 남부에는 닛산, 도요타, 도시바, 코마쯔 등 자동차, 기계 업종을 중심으로 일본 대기업의 진출이 늘고 있음
 - * 경산성은 향후 제조업의 서플라이체인이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인도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, 부품공급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해외 전개를 정부가 지원하고 해외수익을 일본으로 환류 시키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겠다는 의도
- 아직 인도에는 인프라 정비가 안 된 지역도 많아, 경산성은 인도 정부와 협력하여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프라지원도 추진할 계획임
 - 구체적으로 닛키(日揮), 미즈호은행, 싱가포르 부동산기업 등 국제기업연합을 중심으로 일본기업 전용공업단지 조성을 진행할 방침
 - 기업연합이 용지를 취득하여 조성한 후에 일본 기업들에게 분양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약500억 엔. 자력으로 인도 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진출을 지원
 - * 인도 정부와 1월10일 공업단지정비 합의

- 중소기업의 정보 부족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JETRO가 인도 첸나이 시에 비즈니스 서포트 센터를 개설

* 인도 남부에 진출을 희망하는 일본 기업들에게 단기간 사무실을 빌려주고 현지 상 관행, 시장동향 등을 기업에 제공할 계획

□ 시사점

- 2025년에는 중국 인구를 추월하여 14.5억 명으로 세계1위가 되고, GDP성장률 전망이 밝아, 일본기업의 인도 진출은 확대될 전망
- 일본은 인도와 역사적인 우호관계, 일-인도정부공동개발 프로젝트 추진, 일-인도FTA 체결 등으로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일본기업 들에게 투자처가 될 것으로 예상
- 우리나라도 對중국 의존 리스크를 축소하고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인도와 전략적으로 협력하여 위험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음
- 인도와 전략적 협력을 위해 △협력유망분야 선정, △일본기업과 협력을 통해 공동 인프라 수주, △인도 진출 희망기업 수요조사 등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협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

<참고자료>

日本經濟新聞(2012.1.11). 「経産省, 中小企業のインド南部進出を支援」

東京データバンク (2011.2.28). 「インド進出企業実態調査」

野村総合研究所 (2011.12.6). 「急拡大するインド国内市場と迫られる日本企業の戦略転換」